

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것

(히8:6-13)

서론: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. 미래 언약인 전도와 선교를 붙잡고 마음과 중심을 드릴 때,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 지시는 것입니다(마6:33).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언약은 복음입니다.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함으로 각인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(히8:10). 성경은 언약의 책이며,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언약의 전체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.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 안에 있는 생명과 영생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.

1. 옛 언약

- 가.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사단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 언약을 날마다 붙잡게 하옵소서(창3:15, 출3:18).
- 나. 율법은 누구도 완전히 지킬 수 없고, 율법의 행위로 의로울 자가 없음을 알고 오직 복음 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(롬3:20).
- 다.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, 하나님이 여시는 축복의 문과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
- 라.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씀의 성취를 보는 걸음 속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(요1:12, 요8:32).

2. 각인시켜야 할 새 언약

- 가. 인간의 근본 문제를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(요19:30).
- 나.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참된 성공이며,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에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(합2:3).
- 다. 지금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언약 속에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, 언약 속에 있다면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기회임을 알게 하옵소서.

결론: 새 언약인 그리스도와 함께 남겨주신 마지막 언약이 미래에 대한 언약입니다.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이 미래에 대한 언약입니다.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준비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실 것입니다. 하나님은 현장마다 제자들을 준비해 놓으셨기에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. 현장에 가는 걸음걸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어지는 역사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.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. 미래에 대한 언약 붙잡고,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